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소식

- 이단 주의(注意)
- 교회에서 허락되지 않은 성경공부, 기도, 집회참석, 금전거래 금지
강요 강매, 동업 및 갑과 을의 관계로 연결되어짐 유의
- 표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수 1:2)
- 테바운동 진행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www.teba.or.kr)

- 남전도회 월례회 : 낮 2부 예배 후
- 정기 당회 : 주일 오후 5시
- 여름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일군들은 행사 진행과정 중에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격려와 위로를 위한 찬조금은 각 부서로 전달되겠습니다
- **여름행사 일정**
 - 자체강습회 : 유치부, 초등부 : 5일(토) / 유년부 : 12일(토)
 - 유치부 성경학교 : 7월 18일(금) - 7월 20일(주일)
 - 유년부 성경학교 : 7월 25일(금) - 7월 27일(주일)
 - 초등부 성경학교 : 7월 29일(화) - 7월 31일(목)
 - 중.고.대. S.F.C. 수양회 : 7월 31일(목) - 8월 2일(토)
- 점심식사가 3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회

- 매일 기도회 : 새벽 5시, 밤 9시 5층 예배실
- 금요 기도회 : (금) 밤 9시 5층 예배실
- 대학부 기도회 : (금) 밤 10시 30분 2층 교육관
- 중, 고등부 S.F.C. 기도회 : (주일) 저녁예배 후 5층 예배실
- 1권사 기도회 : 매주(토) 오전 10시 4층 휴게실
- 2권사 기도회 : 매주(금) 오후 8시 4층 휴게실

- 불우이웃구제 : 정나래 정한솔
- 성도점심접대 : 윤재균 김영미



"바른교회 · 좋은교회"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주도했던 종교개혁의 중심사상으로 무장하고서 로마 카톨릭교회의 비성경적인 신앙노선과 타협했던 영국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도가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청소(Purity) 하자는 것이었기에 사람들은 이들을 '청교도들'(puritans)이라고 불렀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미국을 건설하고 영적 대각성운동과 노예해방운동, 종교, 사회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운동과 사회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신학사상은 바로 청교도사상의 핵심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사상을 가지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기 원하는 청교도의 후예들입니다.

시흥성문교회는 청교도 전통인 장로교회 정치를 따르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신학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신학을 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 Deo Gloria)
오직 은혜 (Sola Gratia)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시흥성문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교회에 무어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마 9:35)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종교개혁자들, 범위를 더 좁혀서는 청교도들이 실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길을 가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매일 기도회	새벽 5시, 밤 9시	유치 1부	오전 9시
주일 낮 예배	1부 7시 30분	유치 2부	오전 11시 30분
	2부 11시 30분	유년·초등부	오전 9시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시	중·고등부	오전 9시 30분
수요 예배	오후 7시	청년·대학부	오후 1시 20분

교회 오시는 길



교회설립: 1999. 4. 10

2014. 7. 27.

교육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마 9:35)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시흥성문교회
RIGHT CHURCH · GOOD CHURCH

담임목사 이근행
파송선교사 김대중 이남재 서경삼 박빌립
장로 김경섭 정태술
강도사 이창훈 송태경 교육전도사 정성호
사역자 이계숙 정복희

429-250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11-1
교회 (031) 317-5883 FAX (031) 318-5883
www.powersm.org E-mail: powersmorg@gmail.com

주일 낮 예배

1부 / 오전 7:30
S.F.C. / 오전 9:30
2부 / 오전 11:30

사 회 : 설 교 자

예배로의부름 ----- 다 같 이
찬 송 ----- ㉔ 28 (새 28) ①② 12 (새 33) ----- 다 같 이
교 독 문 ----- 십계명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196 (새 262) ----- 다 같 이
기 도 ----- 박 선웅 학생
합 심 기 도
찬 양 ----- "주여 내 삶을" ----- 예루살렘찬양대
성 경 ㉔ 시편 84:1-12 (구약 P. 863) 사 회 자
1,2부 이사야 40:1-11 (구약 P. 1013)
설 교 ㉔ "여호와와 궁전을 사모함" 송태경강도사
1.2부 "말하며 외쳐 고하라" 이 근 행 목사
봉 헌 --- ㉔ 512 (새 315) ①② 268 (새 505) ----- 다 같 이
찬 송 ----- 268 (새 505) ----- 다 같 이
축 도(주기도) ----- 설 교 자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알려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 제 삼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 제 사는 안식일을 가하여 거룩히 지키라.
-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 제 육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 제 칠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 제 구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 제 십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시

사회 : 이근행 목사

예배로의 부름 ----- 다 같 이
찬 송 ----- 463 (새 400) ----- 다 같 이
기 도 ----- 이규철 집사
성 경 ----- 창세기 13:1-13 (구약 P. 15) ----- 사 회 자
설 교 ----- "요단 온 들을 택한 롯"----- 이 근 행 목사
찬 송 ----- 492 (새 435) ----- 다 같 이
광 고 ----- 사 회 자
축 도 ----- 설 교 자

매일기도회

새벽 5시 밤 9시

수요일 예배

오후 7시

봉 사 위 원(총칭생략)

	안 내 위 원	봉 헌 위 원	저녁 예배	사역자
1부	예배위원	예배위원	다음주일안내	이상겸 이현주 3여
2부	이삼권 엄명화 2여	조정순 이병순 추명애 (8월)		
차량	박원규 양선준 이윤우 윤재근 김대형 김창길 윤삼구 이규철 허강수 방성근 문인권 엄명화			

구 분	주 방	2부 예배 기도	주일저녁예배 기도
이 번 주	6 14구역	합심기도	이 규 철
다 음 주	9 13구역	정 태 술	이 상 겸

차량 시간표

구 분	대우	금호	태평	동아,성원	장곡	대동,청구	능곡
새 벽 예 배	4:46	4:45	4:43	4:50	4:40	4:45	
유,초 등 부 예 배	8:40	8:41	8:43	8:40	8:45	8:45	8:40
중,고 등 부 예 배	9:10	9:12	9:17	9:10	9:12	9:16	9:10
주 일 낮 2부 예 배	11:10	11:12	11:15	11:10	11:10	11:15	11:10
주 일 저 녁 예 배	6:40	6:42	6:45	6:45	6:30	6:40	6:40
수 요 저 녁 예 배	6:40	6:42	6:45	6:45	6:30	6:40	
주일 낮 2부 예배 후 1회, 점심 식사 후 1회 차량 운행함							

영원에 비추어본 현재 (정성호 전도사)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에 입학해서 한 학기를 잘 마무리 했습니다. 학기를 마무리 하면서 힘들고 지쳐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소망을 허락해주셨는데,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비추어 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바쁜 일상, 매주 치루어지는 평가, 끝없이 해도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있던 과제(실제로 마지막 과제 제출일이 7월 1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에 급급해서 힘들어하고 따라가기 벅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의미를 찾으라는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큰 두 가지 축입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이걸 철학적 사고에서 그런 것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인간의 삶속에 개입해 오셨고,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 모든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유한한 인간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계 1:8).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묘사를 알파와 오메가(헬리어 알파벳의 처음(α)과 끝(ω)입니다), 이제도 있고(현재), 전에도 있었고(과거), 장차 올 자(미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완벽한 묘사는 요한 계시록 2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자 동시에 나중이고, 시작과 동시에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의 그의 책 『고백록』, 11장에 시간에 대한 묘사에 잘 표현했듯이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순간도 '현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현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현재'고,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선택 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모습도 '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비추어볼 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세상에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엡 4:22) 버릴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영원에 비추어서 현재를 바라보면 돈, 명예, 부귀영화는 다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학기를 마치면서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비추어 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도전이자 위로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일을 좇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여를 사역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의 관점을 심어주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사 40:8)